

2024-06-17 (2024-24호)

06월 17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강한 달러에 박스권 상단 뚫릴까... 약한 위안 확산도 주목

서울, 6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행보를 쫓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레벨 높이기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65-1,390원이다.

글로벌 달러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지수가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박스권 상단 쪽으로 치우쳐있다.

미국 물가 둔화 추세 확인 이후 미국 채권금리가 연이은 하향 시도를 이어가지만, 글로벌 달러는 금리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조기총선 실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로를 압박하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는 80bp 이상으로 벌어져 유로존 재정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달러를 끌어올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달러 견인 재료가 무엇이든 달러/원 환율은 달러와 같은 방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터라 달러/원은 단기 박스권 상단인 1,380원대로 상승을 타진하고 있다.

이에 금주 달러/원은 환율은 유럽 정치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달러 반응을 살피며 수시로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꽤 영향력있는 대외 경제지표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중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등을 비롯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가 발표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의 보복조치도 이어질 조짐이다. 당장은 중국 핵심 경제지표 결과 따라 중화권 증시와 위안 반응이 뒤따를 수있겠지만, 향후 무역갈등 확산 우려 속 위안 약세 기조 확대 여부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할 수도 있겠다. 이에 위안 프락시 통화로 간주되는 원화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야할 수도 있다.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금주는 미국 소비지표가 발표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지난 4월 예상 밖 보험세를 보였던 소매판매가 5월에는 0.2%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돼있는데, 특히 5월 CPI 결과를 연준 경제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관련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금주는 영국, 호주, 스위스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도 다수 있을 예정이다. 글로벌 통화완화 여건

이 앞서 진행될지를 두고 시장의 해석이 뒤따를 전망이다.

미국 증시 강세에 따른 국내 증시 수혜에도 해외주식 투자 확대 등 수급 경계감이 서로 맞서며 원화에는 엇갈린 재료로 해석되고 있다.

큰 틀의 외환수급은 균형적이라고 평가되지만, 그렇다 보니 대외 여건에 원화는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을 이번 주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스권 상단 쪽에 위치하는 달러/원 환율이 여차하면 상단을 뚫고 1,400원대를 향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글로벌 달러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영국·스위스·노르웨이 금리 결정

오는 20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가 중앙은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란은행은 7월4일 선거 전 금리 인하에 대한 집권 보수당의 희망을 꺾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은 8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40% 정도로, 9월 인하 가능성을 70%로 예상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이번에도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은 50 대 50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4% 내외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의 후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호주 중앙은행은 18일 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당분간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움직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美 소매판매 보고서

투자자들은 18일 나올 미국 월간 소매판매 수치도 살펴볼 것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4월에 예상치 못한 보합세를 보였던 소매판매가 5월에 0.2%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 지출은 투자자들이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주목하는 분야다.

⊙ 中 주택가격, 산업생산, 소매판매

중국 부동산 부문 부진이 성장 전망에 계속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시장은 중국의 월별 주택가격, 소매판매 등의 경제지표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나오는 중국 월별 주택가격 데이터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날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도시지역 실업률 데이터도 발표된다.

최근 지표들이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오는 20일 대출우대금리 발표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이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무역 관계 악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 코코아 가격 사상 최고치 근접

코코아 가격은 약천후, 코코아 농장에 대한 만성적인 투자 부족, 투자자들의 투기로 인한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다시 미터톤당 1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최대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는 6월 코코아 수출을 중단했고, 2위 생산국인 가나는 작황 부진으로 인해 최대 35만 톤의 원두 납품을 다음 시즌으로 연기할 계획이다.

코코아는 올해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올랐으며, 현재 대다수 금속보다 더 비싸다. 초콜릿 생산업체들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브라질과 에콰도르 등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코코아가 시장에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유로 2024 개막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축구선수권 2024(유로 2024) 대회가 14일 독일에서 개막했다.

독일의 맥주집과 기업들은 팬들이 더 많이 마시고 대형 TV를 구매하기를 바란다.

독일은 이번 대회가 침체된 경제에 2006년 월드컵의 열기와 같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승 후보인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물론 개최국 독일을 포함해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참가팀이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키트 메이커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도 높다.

참고로 2020년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결승전을 시청한 사람은 무려 3억3,000만 명으로, 슈퍼볼을 시청한 사람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소매주, 고금리 압박 속 방향 모색할 듯

뉴욕, 6월17일 (로이터) -

미국의 높은 금리로 미국 소매업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수개월간의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많은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 반면 일부 기업 주가만 급등했다.

S&P500 소비자 재량 유통 및 소매업 지수는 올해 들어 14% 가까이 상승해 S&P500지수의 상승률과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업종의 강세는 올해 21% 가까이 상승한 대형주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소수 종목이 주도한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저소득층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의 주가는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했다. 가장 크게 뒤쳐진 기업으로는 달러트리와 주가가 연초 대비 27% 가까이 하락했고, 달러제너럴 주가도 9% 가까이 하락했다.

소매업은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 외에도 높은 금리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제의 여러 분야 중 하나다. 지난주 초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장은 18일 발표될 미국 소매판매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소매판매가 0.2%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상보다 약한 결과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조쉬 커밍스는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더라도 온라인 쇼핑과 같은 분야는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로 상승한 카바나와 13% 정도 상승한 도어대시와 같은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전반적으로 소비자 부문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성장 스토리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6월17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6월17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9:30)

6월18일(화)

- ⊙ 기획재정부: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07:00)
- ⊙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 (14: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14:00)

6월19일(수)

- ⊙ 기획재정부: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10:00)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14: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민생경제안정특위 (14:00)
- ⊙ 한국은행: 총재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19~20일, 부산)

6월20일(목)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10:30)
- ⊙ 기획재정부: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 ⊙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 ⊙ 한국은행: 총재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19~20일, 부산)

6월21일(금)

- ⊙ 한국은행: 2024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금융위원회: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실적 점검 (06:00)
- ⊙ 관세청: 6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09: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전기차 현장방문 (09:30)
- ⊙ 한국은행: 2024년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6월1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6월10-17일		중국	FDI (YTD)	5월		-27.90%
6월17일	08:50	일본	기계류 주문 MM	4월	-3.1%	2.9%
6월17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5월		-3.1%
6월17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5월	4.2%	4.2%
6월17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5월	6.0%	6.7%
6월17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5월	3.0%	2.3%
6월17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6월	-9.00	-15.60
6월18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5월	0.2%	0.6%
6월18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5월	0.2%	0.0%
6월18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5월	0.3%	0.0%
6월19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6월		9
6월19일	08:50	일본	수출 YY	5월	13.0%	8.3%
6월19일	08:50	일본	수입 YY	5월	10.4%	8.3%
6월19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4월		44.53B
6월19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6월	45	45
6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6월		3.45%
6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6월		3.95%
6월2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6월10일 주간		208.5
6월20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5월	1.450M	1.440M
6월20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5월	1.375M	1.360M
6월2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10일 주간	235k	242k
6월20일	23: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6월	-13.5	-14.3
6월21일	08:30	일본	CPI MM NSA	5월		0.4%
6월2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SA	6월		50.4
6월21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잠정치 PMI	6월	47.9	47.3
6월2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6월	51.0	51.3
6월21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5월	4.09M	4.14M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17일 (월)

-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18일까지)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주최 행사 토론 주재 (18일 오전 1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글로벌상호의존센터 42차 연례 통화·무역 컨퍼런스에서 연설 (18일 오전 2시)
- ⊙ 휴장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6월18일 (화)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마샬포럼 주최 행사에서 수상 및 연설 (오전 10시)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및 기자회견 (오후 1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MNI 웹캐스트 토론 참석 (오후 11시)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로런스파트너십 연차 총회서 연설 (19일 오전 0시40분)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헤드라이너스클럽 강연시리즈 Q&A세션 참석 (19일 오전 2시)
-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토론 참석 (19일 오전 2시)
-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CFA소사이어티 오찬서 연설 (19일 오전 2시20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2024 마샬포럼 패널토론 참석 (19일 오전 3시)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등

6월19일 (수)

- ⊙ 일본은행 4월25-26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휴장국가: 미국 등

6월20일 (목)

- ⊙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및 기자회견 (오후 4시30분)
-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 (오후 5시)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및 회의록 공개 (오후 8시)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시간은행가협회 연례 컨퍼런스 참석 (오후 9시45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리스크관리협회 리치몬드지부서 연설 (21일 오전 5시)

6월21일 (금)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시라큐스대·맥스웰정책대학원 주최 패널토론 참석 (오전 11시15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해외 전문가 반응) - 연준, 올해 금리 인하 전망 축소... “경제에 큰 영향 없을 것”

6월13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는 12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고 올해 단 한 차례의 25bp 인하 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해, 금리 인하가 늦으면 12월에 단행될 가능성을 높였다.

연준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 성명에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세 차례 25bp 인하 전망에서 한 차례 인하 전망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들 간의 정책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전망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보수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 빌 아담스 코메리카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중요한 것은 점도표의 의견 균형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FOMC가 투표하는 방식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 연준 이사가 점도표에 점을 찍지만, 그 중 소수 만이 FOMC 결정에 투표한다. 대부분의 투표는 금리 인하에 더 호의적인 경향이 있는 연준 이사들이 행사한다. 이는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과반수가 연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경제 지표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대다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의무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FOMC 위원들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반응하여 회의를 통해 통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연준은 오늘 회의에서 의사 결정 과정을 상당히 명확하게 밝혔고, 정책 결정권자들은 그 과정에 따라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추세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된다면 연준은 20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 퀸시 크로스비 LPL 파이낸셜 최고 글로벌 전략가

"연준 성명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측면에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준이 금리 완화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일련의 더 완화된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크리스 로우 FHN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

"결론: 무엇보다도 점도표가 눈에 띈다. 금리 인하에 대해 너무 흥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늘 아침 발표된 5월 CPI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2024년에 한 차례, 어쩌면 두 차례 인하를 암시하는 점도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5월과 같은 보고서가 몇 차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 네이트 토포트 매뉴라이프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CIO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세 차례의 25bp 인하에서 한 차례로 변

경된 점도표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한 차례가 전망치 중앙값이지만 한 차례와 두 차례 전망이 박빙이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중앙값이 이전 세 번의 인하에서 네 번의 인하로 늘었다. 향후 18개월에 대해 25bp 인하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인플레이션 추정치와 실업률 전망치를 소폭 높인 것도 점도표에서 예상되는 인하폭 축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고 주목할 만한 수정이었다."

◆ 마이크 월슨 모간스탠리 CIO

"점도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CPI 발표에 비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M2 성장률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하향 궤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잘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연준은 올해 데이터가 약세를 보인 성장 측면에서는 놀랄 수도 있을 것 같다."

◆ 그렉 맥브라이드뱅크레이트 수석 금융 애널리스트

"수요일 아침에 발표된 5월 CPI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나와야할 인플레이션 지표 유형이다. 연준 성명에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부족함'이 아닌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는 언급이 유일한 인정의 힌트였다."

◆ 진 골드만 세테라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먼트 CIO

"연준은 금리 인하 기대치를 한두 차례로 낮추는 CEO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올해 말에는 두 차례 이상 인하로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매우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브라이언 제이콥슨 애넥스웰스매니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번 정책 성명서는 이전 성명서보다 약간 더 비둘기파적이었다. 오늘의 관측은 CPI 수치가 도움이 되었다. 정책 성명보다 점도표가 더 중요할 것이다. 연준은 세 번의 인하에서 한 번의 인하로 전환했지만 2025년으로 인하를 추가했다. 향후 18개월 동안 한 차례 인하가 줄어든 것이므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인하가 있을 것인지, 한 차례만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경제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몇 달 또는 몇 bp의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의자를 다시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전망치인 '중립' 금리의 상승은 주목할 만하다...현금의 실질 수익률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국내전문가 코멘트) - 매파 점도표에도 금리인하 추세 훼손 없어... “연내 2회 인하 전망 유지”

서울, 6월13일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점도표를 예상보다 큰 폭 하향 조정해 연내 1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추세 유지에 보다 무게를 뒀다.

12일(현지시간) 연준은 정책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고 점도표 내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5.125%로 지난 3월에 비해 50b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연내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한 시장 전망을 벗어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이번 결과가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보다 축소됐지만, 2025년과 2026년 인하 횟수는 종전보다 확대 제시됨에 따라 2026년까지 언급된 최종 금리는 당초와같았다는 판단 하에서다. 결국 금리 인하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회의에 앞서 발표된 5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둔화된 점도 향후 금리 인하 추세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날 나온 소비자물가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5월과 같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 신열,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

"연준의 연내 9월 및 12월의 기준금리 인하의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물가 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완연하게 진입한 모습이다. 물가 지표가 연준에 보고는 됐지만, 주요 경제지표 및 점도표에는 반영이 거의 안 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물가 안정에 기반한 연내 2회 금리 인하는 가능하겠다."

▲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은 올해 인하 횟수에 대한 전망은 크게 줄인 반면에 적어도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발성 조치가 아닌 매우 구조적인 인하 사이클일 것이란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기존 2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다소 더딘 물가 안정으로 인하를 개시하는 시기 전망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늦추고자 한다. 아울러 인하를 개시한 이후 올해 4분기 추가로 1회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존 전망도 유지한다."

▲ 김상훈,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시장금리는 CPI 예상치 하회 이후 급락했고, FOMC 이후 낙폭을 일부 축소했다. 시장이 데이터 의존적을 강조하는 연준 기조에 맞춰 점도표보다 양대 책무에 해당하는 물가 지표 결과에 더 무게를 뒀다고 판단한다. 하반기 2차례 인하와 미국채 10년물 금리 4.1% 저점 전망을 유지한다. 더불어 하반기는 물가보다 고용에 더 집중해야 하며, 인하 횟수보다 인하를 실제로 단행하는지 그 자체가 시장금리 하락의 동력이 될 것이란 견해도 유지한다."

▲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채권시장은 점도표와 물가전망치에 실망했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안도했다. 점도표 중립금리는 올해 및 내년 상향조정했으나, 2026년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9월 인하 전망은 후퇴할 수 있으나 최종 정책금리가 반영된 폭은 유지되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6~7월에도 물가 둔화가 이어진다면 연내 인하폭은 2회로 상향 조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 4.20~4.40%의 단기 레인지를 유지하되 레인지 하단으로 점진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한다."

▲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2024년 점도표는 예상보다 약간 매파적이었지만, 2025년까지의 전망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파월 의장과 연준은 여전히 미국 경기와 인플레이 압력이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다수 위원들이 2회 인하를 지지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에 따라 연내 2회 인하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 백윤민, 교보증권 수석연구위원

"연준이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총 2회의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5월 CPI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1~2차례 정도 더 나타난다면 충분히 전망에 대한 의견이 수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점진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금리인하 조건들은 개선될 것이다. 반면에 고금리 장기화로 미 기업들의 신용여건 약화, 부채 리스크, 상업용 부동산 불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의 점도표가 올해 1회 금리 인하로 수정되었으나 통화정책 방향이 긴축이 아닌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달러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3분기 중 미국 물가와 노동시장의 지표가 둔화되며 성장 모멘텀이 상반기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대어 달러는 소폭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BOJ, 채권매입 축소에 신중... 달러/엔 상방 위험

6월14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14일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장기 금리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향후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BOJ는 이틀간의 정책회의 후 현재 속도로 국채를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1~2년 동안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7월에 있을 후속 정책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일본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 달러/엔은 1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다음은 이번 정책 결정과 관련한 해외 전문가들의 코멘트이다.

◆ 미야지마 타카유키, 소니 파이낸셜 그룹 선임 이코노미스트

"오늘 결정은 BOJ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데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BOJ가 금리 인상에도 신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OJ가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 크리스토퍼 워, OCBC 통화 전략가

"BOJ가 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엔이 전고점인 160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입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개입은 기껏해야 절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옵션일 뿐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달러/엔이 더 의미 있게 하락하려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거나 BOJ가 긴급하게 정상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 중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달러/엔의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는 위쪽이다."

◆ 히로후미 스즈키, SMBC 수석 FX 전략가

"이번에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놀라운 일이다. BOJ는 다음 회의에서 향후 1~2년 동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소 도비시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절하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기준금리 인하 따른 환율 영향·환율 변동성 확대 경계 - 금통위 의사록

서울, 6월11일 (로이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 시 환율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환율 변동성 확대를 경계했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제10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평가절하 가능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향후 절상 및 절하 리스크를 모두 염두에 두고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한 스웨덴 통화인 코로나 움직임을 주목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 이후 기간은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던 시기로 코로나가 달러보다 강세를 보였지만 유로나 파운드보다는 절상폭이 작았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 위험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외환시장 여건이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할 정도의 상황인지를 묻는 C 금통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환율 불안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거래 등으로 대응하고, 외화자금시장 경색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규제 단계별 완화,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과 외화 RP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D 금통위원은 달러/원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주요국과의 상대적 환율 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과의 수출 경쟁이 과거보다 약화됐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원이나 위안에 비해 엔 절하 속도가 빠르고 그 폭도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 금통위원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환율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연준의 금리 향방이 정해질 때까지는 환율이 당분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E 금통위원은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며 시장안정화 조치, 외환 부문의 거시건전성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구조적으로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